



백지복서 명가 현각 대사 증도가

“사경은 나에게 딱 맞는 수행법”

허유지 작가, 3월 16~23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두 번째 사경전 열어



수행은 깨달음의 씨앗을 찾아내고 삶의 비밀을 꿰뚫어주는 열쇠이다. 일찍이 불교 수행의 한 방법으로 자리잡아 온 사경은 동시에 불교를 꿰뚫어 문화예술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경작품은 몸·마음·도구의 정정함을 기본으로, 사색의 욕망과 성별, 어리석음을 여윈 경지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정신만 한 데 모든 수행의 결과물이다.

“사경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수행법”이라 말하는 허유지 작가는 최근 자신의 수행 결과물들인 사경작품을 통해 2번째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3월 16-23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2010년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첫 개인전을 가졌던 허유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보다 다양하고 현대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이산해연선사발원문> 등 경전사경을 비롯해, 25년간 갈고 닦았던 서예실력을 여

실히 보여주는 작품들과 민화작품 등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화엄경 약찬게’ ‘법화경약찬게’ 등 일반 사찰에서 많이 독송하는 계승과 선 사들의 말씀을 현대미가 가미된 창작품들로 탄생시켰다. 사경작품들은 묵서, 주묵, 경면주사, 은니, 금니 등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을 통해 한 문에서 한글사경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허유지 작가의 전통 사경작품은 한글과 한문 등 여러 서체를 두루 섭렵한 공력이 돋보인다. 품격 있는 서체와 불교의 깊은 신앙심을 경전과 일체화시켜, 수행의 경지와 사경예술의 진면목을 작품에 녹여내고 있다.

6년 전, 단지 <금강경>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우연히 사경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는 허유지 작가는 “사경을 하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고 말한다. 참선할 때는 잡생각이 많이 들지만, 사경을

하면서는 오로지 점획 하나하나에만 집중해 잡념이 침투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사경은 점획을 구성하는 글씨의 붓털 하나에도 기운이 배어아 하기 때문에 느낌의 미학이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때문에 붓끝 털이 하나라도 제자리에 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가면, 글씨가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천천히 빠르지 않게 써 내려간 글은 곧 수행이 된다.

허유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사경이 하나의 수행이고 공덕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사경이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유지 작가는 “앞으로 세밀한 변상도를 위주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작업할 계획”이라며 “한 점을 하더라도 난이도 있는 작품을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이은경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② 블랙스완

죽음을 부른 ‘완벽’에 대한 욕망

2011년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탈리 포트만에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블랙스완’(Black Swan)이 연일 화제다. 개봉 1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 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I was perfect” (나는 완벽했어)

여주인공이 목숨과 맞바꾼 공연을 마치고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다. 현대인들의 성공에 대한 강박증을 예술가의 삶을 통해 잘 표현했다. 그녀의 열연에 영화 속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나나’의 하얀 백조 의상은 핏빛으로 물들어간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발레리나로는 적지 않은 25살의 나나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누

키겠다. 나나의 욕망은 열정을 넘어서 고통과 광기로 뒤엉킨다. 나나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젊었을 때 발레리나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엄마가 물려준 숙제인 동시에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는 욕망의 발로다.

정신분석 전문가인 서대 김해남 교수는 “현대인들은 완벽에 대한 추구가 지나쳐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현대인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성공에 더욱 집착한다. 그러나 그 집착은 반드시 상실감과 결핍을 가져오며 결국 삶을 파국으로 치닫해 한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삼독(탐·진·치)의 탐(貪), 사성제(고·집·멸·도)의 집(集)으로 설명한다. 탐(貪)은 탐욕을, 집(集)은



욕시립 발레 단원으로 살고 있는 착한 딸이다. 그녀의 삶에는 친한 친구도 남자친구도 없고 오직 발레만 있다. 성실한 연습 빌레로 테크닉도 뛰어난 그녀지만 여태 주인공을 한 번도 맡아 보지 못했다. 그런 그녀에게 ‘백조의 호수’ 주인공의 기회가 찾아온다.

백조의 호수 주인공은 1인 2역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백조와 동시에 관능적이고 매력적인 흑조를 연기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주인공 자리를 호시탐탐 탐내는 관능적인 경쟁자 ‘릴리’가 등장한다. 나나는 주인공 역을 빼앗길까봐 점점 궁극하면서 완벽한 흑조에 연기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다. 뒤늦게 찾아온 큰 기회를 반드시 완벽하게 성공시

회를 구하려는 헛된 집착으로, 탐과 집 모두 고통의 원인이다.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는 욕망을 돌로 나누어 설명했다. 한교수는 “바람직한 원망은 ‘원(願)’으로 표현하고 탐집에 의한 욕망은 아집과 아상에 의한 것으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무명에 가리워져 자신의 보물(부처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밖에서 보물을 구하고 있다. 타인이 만들어낸 ‘완벽’이라는 허상을 쫓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발레리나 나나는 무명을 걷어 내지 못하고 ‘지혜’를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모습이다. 내안의 가득한 보배를 바로 알아차림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안평대원군 글씨 한국서 보게 되나

정병국 장관 발언에

헨더슨 컬렉션 내한 기대

해외로 반출 문화재 중 최고의 도자기 컬렉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 ‘헨더슨 컬렉션’ 국내 전시가 추진 중이다.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은 “헨더슨 컬렉션 국내 전시를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헨더슨 컬렉션의 한국 반환 운동은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해문)가 2006년부터 진행해왔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방문단이 2009년 하버드대학 아서세클러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헨더슨 컬렉션의 한

국전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헨더슨 컬렉션’은 194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7년 동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문정관 등으로 근무하던 그레고리 헨더슨(1922~1988)이 수집·해외 반출한 도자기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은 헨더슨이 한국에 재직하면서 수집하거나 한국의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헨더슨은 한대선이란 한국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한국문화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문화재 반출범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헨더슨은 전 광용의 소설 <거베판리>에 브라운

박사도 풍자되기도 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문화재 해외반출이 금지됐으나 헨더슨은 외교관 신분용 이용해 아무 제약 없이 문화재를 반출했다. 그의 사후 보스턴 집을 취재한 현지 언론들은 “방파대 한국 유물로 가득 차 있어 박물관 같았다”고 전했다.

1988년 헨더슨이 사망하자 부인인 마이어 여사는 가야 토기에서 조선 후기 회화에 이르는 한국 문화재를 부군의 묘고인 하버드대학 아서세클러 박물관에 기증했다. 하버드는 이를 계기로 ‘천하제일(First under Heaven) 헨더슨의 한국도자기 컬렉션’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



안평대군의 '지장경금니(金泥)사경'

기도 했다.

기증된 150점의 문화재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안평대군의 ‘지장경금니(金泥)사경’이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願經)>을 푸른색 감지 위에 금으로 써내려간 작품의 상단에는 안평대군 친필임을 뜻하는 ‘안평대군진적(安平大君眞蹟)’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특히, 조선 초기 명필을 대표하는 안평대군의 글씨는 국보 제 238호 ‘소원화개첩’이 유일했으나 도난당해 국내에는 남아있는 작품이 한 점도 없다.

해문 스님은 “2007년 마이어 여사가 세상을 떠나자 후손이 없던 부부의 유물은 경매로 팔릴 뻔했다. 헨더슨 컬렉션의 국내 전시를 계기로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